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5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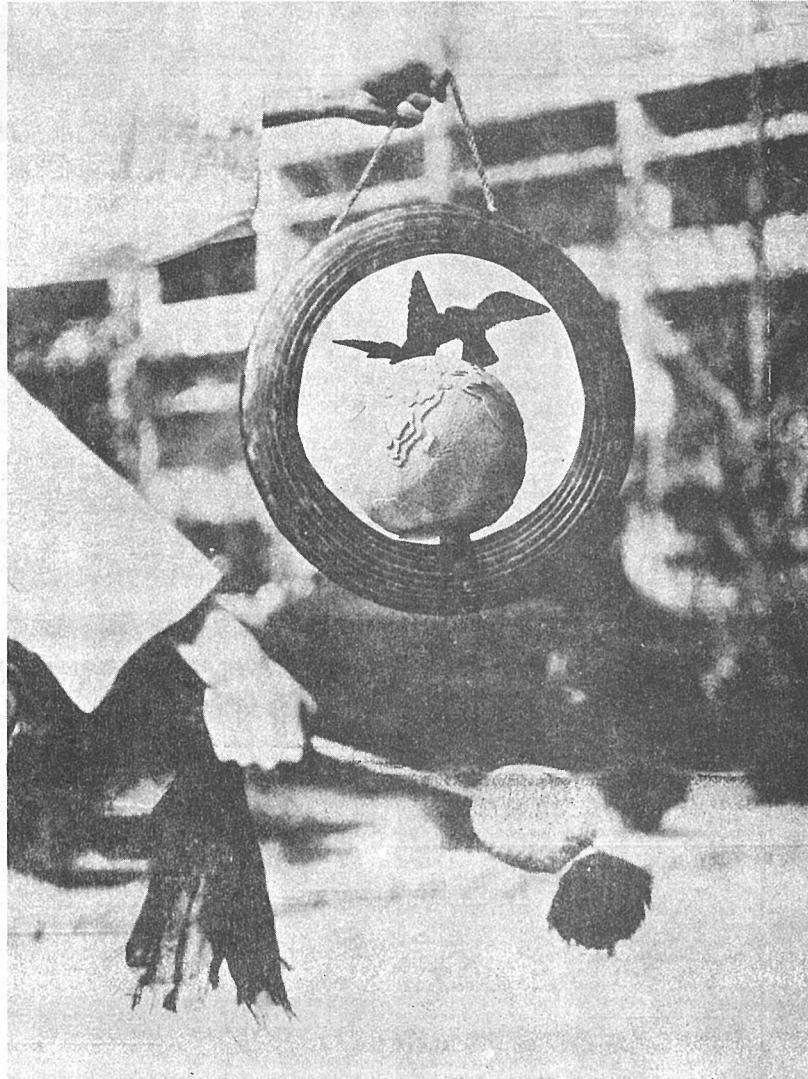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김기자  
편집장 문재운  
외대신문사(☎ 02-962-7128, 965-7001)  
외대 학보(☎ 02-965-7048, 965-7001)  
130-791 서울시 종로구 을지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오현면 왕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 513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4월 11일 (화요일)

잠든 외대학을 깨워라 정론의 정속리여!



◇사진:한성원 기자

## 이어짐을 위한 끊임없는 전진

창간사  
이어간다 함은 겹겹이 닉쳐오는 역경을 이기고 나아감을 말한다. 하여 이어짐은 대립물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과정이요, 때문에 고통의 과정이기도하다. 그것이 사람의 고민과 힘으로 만들어지는 신문일 때 그의미는 배(倍)를 더하지 않겠는가.

그름을 바로잡고 올바름을 알리기 위해 대나무의 곧음을 이어온지 34년.

우리의 역사가 부정과 억눌림으로 이름 불여진 절곡의 연속이었기에 그 곧음의 이어짐은 우리에게 몇 쪽 위진 껌질을 개기 위한 고통을 그리하여 헤낸 뜨거운 고민으로 글쓰기를 요구했다.

여기, 무엇이 전리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칠혹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순결한 한반도에 외세의 지배가 시작된지 1세기를 헤아리기가 멀지 않은 지금, 그의 대리 세력임이 분명한 독재자의 폭압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목을 조여 오고 있으며 이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현언론의 자태는 우리를 더욱 불노케 한다.

제도언론이 비추어지는 우리의 현실은 구기어지고 왜곡되어 더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매일 빈틈없이 곳곳에 뿐려지는 환자의 배열은 우리의 눈과 귀를 털어막고 우리를 예속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간 강도이며, 그래서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들은, 이제 더욱 상 우리에게 언론이 아니다.

하여 외대학보는 민족의 자주권을 틀어쥐고 조국의 이어짐을 가로막는 외세에 대한 분노에 찬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빼앗긴 생존권을 돌려받고자 거리를 메우는 근로대중의 요구를 부여 안을 것이다. 이땅 민중을 얹누르는 외세와 독재를 향해 양심과 사상을으로 다듬어진 죽창으로, 칼끝으로 원고를 훠갈 것이다.

이제, 민족자주언론의 선봉이고자 피로써 지켜온 대학언론에, 벼랑에 몰린 저배자들의 반동적 폭압이 그 추악한 손을 뻗친다해도 하나의 활자마다 자주·민주·통일을 세우는 각오로 외대학보를, 자주언론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은 「후퇴는 끊어짐이요 전진만이 이어짐」이라는 외대학보 34년 역사의 전리가, 누런 갓지속에서 펼펼 뛰는 청백으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창간특집호 면소개)

- |                           |                            |
|---------------------------|----------------------------|
| 1면: 화보, 창간사               | 7면: 특집 II - 권연유학의 효시, 돌아일보 |
| 2면: 문화·문화사방복을 계기로 본 89년   | 8면: 특집 II 좌담·집회는 신문으로 전락   |
| 3면: 통일운동 전개방향             | 9면: 대학신문 발행 꿈해야 한다         |
| 3면: 시도기사                  | 9면: 논문 - 민족극본 정립방법과 일부     |
| 4면: 리포트(7) - 조국통일운동들의 전진과 | 10면: 보도기획 - 환경자주화 실현을 위한   |
| 인민제로의 접근                  | 제언(1)                      |
| 5면: 국제인터넷·인력당은 불경이가 아닙니다  | 11면: 기획기사 - 새롭게 단장된 중앙도서관  |
| 6면: 특집 I - 옥선일보의 70년 곡필사  | 12면: 광고 - 3월에 내리는 눈        |

진리·평화·창조

## 國際化시대에 앞서가는 大學校















# 「접하는 신문」으로 전략한 대학신문 탈바꿈 해야 한다

▲사회부: 우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역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인한 학내전체제의 확대화로 대학신문의 독점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위상과 역할도 일정 정도 변화를 향해 한동안이나 됩니다.

그럼 먼저 「매체혁신」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명준: 「매체 혁신」이 제기된 배경은 「대학신문」이 그간 독자분과 피하기 싫어졌고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재 각 신문사에 「매체혁신」과 「주체혁신」이 내부되어 대학신문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3월에 내리는 눈



사, 안기부, 천안본부 해체하라」  
한글 글씨로 눈송이의 이미리를  
중에 가려 하여지기 시작했다.  
나로운 글씨 이미 날은 기억속  
으로 빙빙 돌게 한다.

그날 그랬다. 큼직한 여행  
가방 두개로 정리된 1년생의 대  
학생활을 힘겹게 두 손으로 나뉘  
어 헤아듯 서둘러 빠져 나

가로는 눈을 두 수조자 없을  
정도로 바람과 불고 그 바  
같은 눈가루를 이리저리 날리  
고 있었지. 선에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나루토마치  
앞 걸친 표를 사서 아무

수술을 조이 것 같다.

경시 민족의 심판대에 올려진  
네 웃으신 실무들이 보인다. 그

나는 당시 민족을 편집하는 아들은  
매우 오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기사들이란 낙인을 찍혀버린 채

다리를 아파도 아파도 대한 믿음,

기대가 전부인 아들을 위해 난

단단히 쌔어진 그들의 영역으로

비밀고 들어가야 한다.

『행복한 4월』(향토문화회)

이까부터 앉아 있던 나무의  
자, 그 주변 풍경은 녹녹하다.

하늘은 무겁게 내리 않고 습기가  
스며드는 풍경은 아름다. 살갗감

위의 둘로 물었는데 내게 기여에 일

고로 숨어 넣고 밟았지.

『이년 눈을 우린 그냥 골내

들고 내리고 놀랐지.』

『이년 눈을 우린 그냥 골내